

# 비장애대학생의 학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P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Recognition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of learning communities: Focusing on P university case

황 순 영, 차 세 진, 김 명 주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 요약 〉

본 연구는 비장애대학생들이 학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P대학 비장애대학생 중 장애대학생과 함께 강의를 수강 한 경험이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반적 인식, 교수의 지원, 대학의 지원, 장애대학생과의 공동 학업 등 총 12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결과는 전체 평균 4.1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대학이 장애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타당한 지원을 비장애학생이 함께 경험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을 학업 공동체 구성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장애대학생, 비장애대학생, 학업 공동체, 인식

## I. 서 론

대학교육 보편화의 기준은 진학률 80% 선이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넘기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이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보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민권(citizenship)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정경순, 2005). 이는 장애인 또한 대학 진학은 물론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의미한다.

장애학생에게 대학교육이 본격화 된 것은 ‘장애학생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이다. 제도 시행 첫 해에 113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 한 후, 2016년에는 8,749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등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학에 진학한 장애대학생 중의 약 30%는 학사경고를, 16.7%는 제적을 당한 적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평균 성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업 적응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김진호, 2004; 김성에 외, 2003).

한편, 장애대학생의 학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지지로서, 물질적·정서적·정보적·평가적 지지가 포함된다(김정은, 2013; 이경립, 박재국, 2007; 문주영 외, 2014).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사회적 지지를 함께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전공·교양관련 학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비장애대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의 학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여, 장애대학생이 학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학업 적응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부산 소재 P대학(4년제)에서, 장애대학생과 함께 강의를 수강 한 경험이 있는 비장애대학생 27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세한 기초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기초정보

배경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8	58.5
	여자	112	41.5
장애대학생과 함께 강의를 수강 한 횟수	1회	133	49.3
	2-5회	89	33
	6-10회	6	2.2
	11회 이상	42	15.6
함께 강의를 수강한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	시각장애	13	4.3
	청각/언어장애	13	4.3
	신체장애	165	54.3
	발달장애	11	3.6
	건강장애	8	2.6
	잘 모름	94	30.9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장애대학생과의 학업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 1문항, 교수의 지원 3문항, 대학의 지원 2문항, 장애대학생과의 공동 학업 6문항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교수 1인, 특수교육학 박사 2인, 특수교사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Cronbach  $\alpha$  계수는 .91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을 통해 순위도를 살펴보았다.

# Ⅲ. 연구결과

장애대학생의 학업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4.15로 나타났다. 이 중 추가적인 시험지원(4.48)과 추가적 수업지원(4.3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선수강신청(3.78)과 장애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공·교양 공부를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3.8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 결과

질문	평균	순
교수님이 장애학생에게 시험시간 연장 및 시험 대필 등의 추가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48	1
교수님이 장애학생에게 지정과석제, 강의녹음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34	2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33	3
장애학생과 함께 다른 교양수업을 수강 해도 된다.	4.25	4
장애학생과 함께 다른 전공수업을 수강 해도 된다.	4.24	5
교수님이 장애학생에게 수업자료 사전 제공, 과제 조정 등의 추가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18	6
장애학생이 우수하게 수행하는 전공·교양 공부가 있으면 내가 배울 수 있다.	4.15	7
장애학생과 함께 팀과제를 수행 해도 된다.	4.14	8
장애학생과 함께 실험·실습을 수행 해도 된다.	4.11	9
장애학생은 대학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다.	3.93	10
장애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공·교양 공부가 있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3.85	11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우선수강신청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78	12
계	4.15	-

## IV. 논의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 학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5점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이나 강의 수강을 위한 추가적 지원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대상과 연구의 배경이 된 P대학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대학생과 함께 강의를 수강 한 비장애대학생이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의 학업활동을 관찰하였거나 공동의 작업을 경험한 상태이다.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과 함께 학업활동을 수행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지은, 신윤정, 2015). 즉, 장애대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학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대학생과 장애대학생의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 통합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배경이 된 P대학은 2014~2017년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7.8%의 대학으로서, 장애대학생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이로 인해 장애대학생에게 타당하고 적절한 지원들이 제공되었을 때, 장애로 인한 학업적 제약은 줄어들고 오히려 우수한 구성원이 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한다면 장애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비장애대학생의 인식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 (2018).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발표.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정은 (2013). 장애대학생의 학업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요인 분석. 학습장애연구, 10(3), 159-179.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3(1), 119-136.
- 문주영, 손승현, 이예다나 (2014). 사회적 지지와 장애대학생 학업적응의 관계: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문제연구, 27(3), 53-75.
- 문주영, 손승현, 이예다나 (2014). 사회적 지지와 장애대학생 학업적응의 관계: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와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문제연구, 27(3), 53-75.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정경순 (2005).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 엘리트적 특권에서 시민권 획득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1(3), 1-23.
- 지은, 신윤정 (2015). 비장애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과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4(1), 205-225.